

한시로 쓴 “유서”

《나의 장례식—自挽詩, 나의 죽음 소유하기》

서평자 이국진 (강원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우리는 죽음을 당장 나오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며 외면한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죽음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윤곽을 보여주고, 삶을 소중히 여기며 의미 있게 살아갈 이유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삶의 문제이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은 조선시대 자만시에 초점을 맞춘 자만시 전반에 대한 최초의 검토이다. 자만시는 자신의 죽음을 가정하고 쓴 만시이다. 저자는 우연히 맞닥뜨린 남효온(南孝溫)과 임제(林梯)의 자만시로부터 연구를 시작해, 자만시의 시원과 계보를 탐색하고, 조선시대 주요 자만시에 대한 역주 작업《내 무덤으로 가는 길》, 문학동네, 2014)을 진행하였다. 나아가서 자만시의 수용 양상을 고찰하고, 한중 자만시의 비교 과정을 거쳐 조선시대 자만시의 현대적 의미를 탐색한 뒤, 그 모든 연구 성과를 이 책으로 엮었다. 따라서 이 책에는 10년 동안 차분하면서도 치밀하게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자만시를 개관하고, 자전적 글쓰기라는 측면에서 조선시대 자만시가 지닌 한국적 특수성을 탐색한 저자의 저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전체 12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1장을 지나 2장부터 5장까지이다. 여기에서 저자는 먼저 자만시의 개념·성격·특징을 고찰하고, 위진남북조 시기에 만가(만가시)에서 자만시가 발생하는 과정을 탐색한다. 이어서 이런 자만시가 우리 문학에 수용되어 한국 자만시가 발생하는 배경과 정황, 그중에서 ‘자만’이라는 제목을 최초로 단 남효온(1454-1492)의 작품이 지닌 위상을 면밀히 고찰한다.

첫 번째 부분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한국·중국·일본의 관련 연구 성과를 망라해서 살피며, 시어의 어감과 문집의 유통 과정, 간본별 작품의 수록 여부와 시구의 차이 등을 문헌학적으로 치밀하게 고증하고 분석하는 점이다. 저자는 이를 통해 자만시의 계보에서 도연명(陶淵明)과 진관(秦觀)의 작품이 초탈[了達]과 애원(哀怨), 달관과 자기연민[自傷]이라는 뚜렷한 대비를 이루며, 조선시대 자만시도 이 두 가지 정서가 길항하고 변주되고 있음을 간파한다. 이어서 도연명의 《의만가사(擬挽歌辭)》가 지닌 영향력, 화도시(和陶詩)와 조선 전기 자만시와의 관계, 그 가운데 남효온의 자만시가 보여주는 문학적 성취 등을 상세히 고찰한다.

두 번째 부분은 6장부터 8장까지이다. 여기에서 저자는 조선시대 자만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자아표현·허구성·상장례의 네 가지를 제시한다. 앞의 두 가지는 자만시에 담긴 의식세계를 분석하는 기준이 되고, 뒤의 두 가지는 자만시의 표현방식과 작품구조를 분석하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조선시대 자만시가 ‘죽음 앞의 고독’, ‘초월적 죽음’, ‘가장(假裝)된 죽음’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변주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중국 자만시와의 영향 관계와 변별점을 대비하며, 조선시대 자만시의 개성적인 면모와 문학적 의미를 탐색한다.

그리하여 6장에서는 조선 전기 사회기(士禍期)에 지어진 자만시에 담긴 지식인의 고뇌와 죽음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분석함으로써 ‘죽음 앞의 고독’을 형상화 한 작품을 고찰한다. 7장에서는 죽음에 달관하는 자세의 양상과 그 문화적 배경을 분석하고, 시공간을 초탈하여 나의 죽음에 집중하고 개성적 표현으로 형상화 한 ‘초월적 죽음’의 작품 실상을 고찰한다. 8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장례의 묘사와 허구성을 강화해서 거짓 죽음의 서사가 매우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가장(假裝)된 죽음’의 작품을 분석한다.



임준철 지음 | 2019-12-27
신국판 | 380쪽

머리말 나의 죽음 앞에서

제1장 실마리: 1489년 남효온과 김종직이 주고받은 편지

제2장 자만시의 탄생: 만가·만시로부터 자만시로

제3장 남효온의 자만시: 한국 자만시의 시작?

제4장 배경과 정황: 한국 자만시의 발생 경로

제5장 전범의 변주: 화도시와 조선 전기 자만시

제6장 죽음 앞의 고독: 조선 전기 사회와 자만시

제7장 초월적 죽음: 자만시에 나타난 죽음 수용방식

제8장 가장(假裝)된 죽음: 허구적 장치로서의 자만시

제9장 고통의 기억들: 자만시 연작(連作)

제10장 주제로부터 수사의 일탈까지: 자만시의 변격(變格)

제11장 시공간의 차이에 따른 같은 노래 다른 숨씨 [同曲異工]: 한중 자만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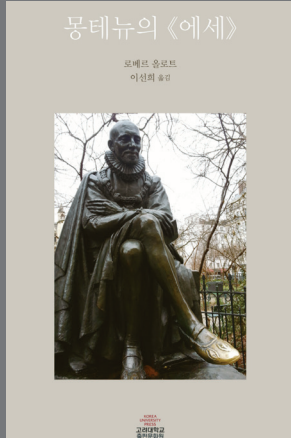
제12장 자아의 혼성(hybrid)과 시적 정체성

맺음말 나의 죽음 소유하기

참고문헌

찾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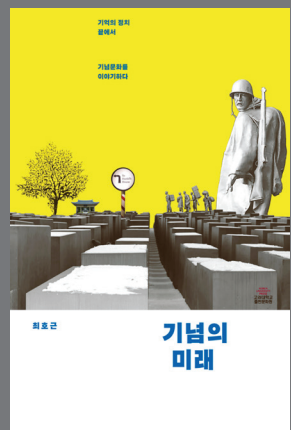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동테뉴의 <에세>
로베르 올로트 지음 | 이선희 옮김



행복과 사회 | 박승민 지음



기념의 미래 | 최호근

세 번째 부분은 9장부터 12장까지이다. 여기에서 저자는 조선 후기의 자만시가 내용과 글쓰기 방식에서 모두 변격과 일탈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한국 자만시의 특성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고찰해 나간다. 이를 위해 9장에서는 조선 후기에 연작시 형태로 쓴 자만시들이 늘어나는 양상에 주목하고, 그중에서 이시원(李是遠)과 이명오(李明五)의 작품을 통해 연작으로 자만시를 지은 이유와 그 문학적 특성을 고찰한다.

10장에서는 우의적 자기표현으로 문학적 특성을 극대화 한 김조순(金祖淳)의 작품, 자신의 자만시를 생명의 고비를 넘긴 뒤 고쳐 쓴 박치원(朴致遠)의 작품, 과체시(科體詩) 형식으로 쓴 정기안(鄭基安)의 작품, 두보의 오언시 <유자(遊子)>의 매 구절마다 두 글자씩을 덧붙여 칠언시로 바꿔 쓴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자만시 양식의 자기 변화와 갱신의 양상들을 고찰한다.

11장에서는 한국 자만시의 특성을 부각하기 위해 한중 자만시의 비교와 대비를 세밀히 진행한다. 저자는 먼저 발생과 유래 과정에서 중국과 우리나라 자만시의 근원적인 간극을 검토하고, 자만시 계보의 시원인 도연명의 <의만가사(擬挽歌辭)>와 비교해 조선시대 자만시의 특징적 국면을 일곱 가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호란(胡亂) 무렵 태어나 승명배척의 일관된 삶을 살다간 이연직(李彦直)과 명말 청초의 장대(張岱)가 남긴 자만시를 대비적으로 살펴보고, 구한말 김택영(金澤榮)과 중국 장인년(張麟年)이 자만시를 창수(唱酬)하며 진지한 교류를 맺는 양상을 자세히 추적한다.

12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자만시에서 구현되는 자아상의 특성과 시적 정체성을 탐색한다. 그리하여 자만시의 자아는 살아 있는 나와 죽은 나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지니는데, 여기에는 위진 시기 만가시의 문체적 특성도 중요한 몫을 담당했다고 분석한다. 나아가서 조선시대 자만시의 창작 동인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자만시는 자아를 재창조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실제 작자 자신의 정체성과 부합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끝으로 이 책의 맺음말에서 저자는 자만시의 위상과 죽음 인식 방식의 가치를 현대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이를 통해 자만시는 전근대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죽음을 현명하게 맞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으며, 자신의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고 되새김하는 행위였음을 강조한다.

이 책의 가치는 다음 세 가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 학술적 엄밀성과 체계성이다. 저자는 동아시아 자만시의 계보와 문학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조선시대 자만시의 계보와 문학적 특성을 세밀히 고찰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자만시의 근원과 본질을 탐구하는 지난한 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한·중·일의 문학사적 맥락과 연구 성과를 추적했다. 이를 통해 엄밀한 학문적 논리 체계 속에서 조선시대 자만시의 문학과 개성을 다채롭게 보여주었다.

둘째, 교육적 측면의 활용 가능성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연명 의료 결정법’이 대변하듯이 이제 웰빙(Well-being)과 함께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Well-dying)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죽음을 회피 또는 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막연하고 부정적으로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성숙을 위한 죽음학(Thanatology)과 죽음(준비)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이 책은 죽음 교육에서 선인들의 자만시 쓰기를 다루는 데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양서적으로서의 유용함이다. 죽음은 왠지 불편하고 곱끄러운 주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당장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며 외면한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죽음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윤곽을 보여주고, 삶을 소중히 여기며 의미 있게 살아갈 이유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삶의 문제이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이 책을 바탕으로 우리는 선인들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관조해 보며, 내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책과 가까이, 더 넓은 세상

KOREA
UNIVERSITY
PRESS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